사업체 매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949) 501-8555 Leah Ivy Chang

부동산 · 경제

BUSINESS • REAL ESTATE

전 당 포
LC3019-0990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미 개미들, 6월 뉴욕증시서 7년래 최대 매수

미국의 개인투자자들이 지난달 뉴욕증시에 32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신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밴더리서치를 인용해 개미들이 지난 6월 총 280억 달러 상당의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순매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최다 금액으로, 게임스톱을 비롯한 '밈 주식' (meme stock·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 거래가 절정에 달했던 올해 1월보다 많은 것이다.

▲ 뉴욕 증권거래소. 사진=shutterstock

개미들의 투자 열풍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36차례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차에 집중됐던 개미들의 매수세는 2월 이후 대마초 관련주, 가상화폐를 거쳐 최근에는 반도체, 에너지, 원자재, 금융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2주 동안에는 알피, 마린 소프트웨어, 아이코닉스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기업들로 개미들의 투자금이 쏠려 해당 기업들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상승장이 계속될 것이란 낙관적인 기대가 개미들의 매수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다이얼캐피털 조사 결과 개인투자자의 70%가 향후 3개월간 미 증시가 계속 오를 것으로 자신한 반면, 전문투자자들은 44%만이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다수의 펀드 매니저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증시 고평가 부담 때문에 향후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고 WSJ이 전했다.

미 셰일업체 유가 상승에도 증산 주저

미국 셰일 업계가 최근 유가 상승에도 증산을 주저하고 있다.

7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셰일업체들은 생산량을 늘리지만 최근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면서 수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음에도 올해는 예년과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의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한때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76.98달러까지 올랐다.

이같은 유가의 고공 행진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이견이 큰 데 따라 원유 감산 완화가 난항에 빠진 데 따른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에도 셰일업체가 증산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 중 하나로 유가 하락에 대비해 체결한 헤지 계약 등을 주목하고 있다. 우드 맥켄지에 따르면 추적 가능한 53개사가 유가 상승으로 올해 1분기에만 총 32억 달러의 헤지 계약 손실을 봤다.

로이터통신은 셰일업체들이 생산량 증대보다는 투자자 이익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 경제 저임금 직종 고용 환경 개선

▲ 사진=shuterstock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 음식, 소매유통 등 주로 저임금 직종의 일자리가 많이 늘고 급여도 오르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날 미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6월 일자리 증가분 85만 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음식, 호텔, 유통매장, 미용실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음식과 기타 접객업의 일자리가 34만3천 개가 생겼고 소매유통업계 일자리는 6만7천 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봐도 전체 일자리 증가분 330만 개 중 접객 및 레저 업종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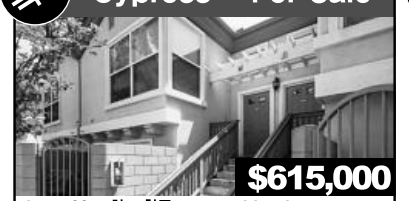
이들 저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도 두드러졌다. 소매유통의 6월 평균 시급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작년 2월보다 8.6% 올랐고 다른 접객업은 7.9%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6.6%)을 웃도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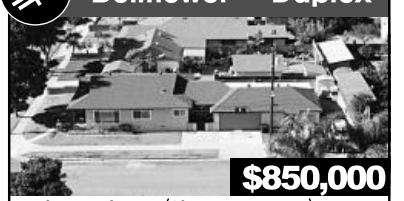
특히 구인난이 심한 일부 지역의 임금 상승세는 훨씬 더 가파르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음식업종의 초봉은 코로나19 사태 전 시간당 15달러에서 최근 2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구인구직알선회사 SVS그룹은 전했다.

ONE GROUP REALTY
www.OneGroupRealty.com
상담문의 Charles Lee
714.614.2426
charleslee@onegrouprealty.com
Charles Lee/Broker
Lic. #01361071, 01861239
집 부동산은 브로커 찰스 리에게!
집/ 커머셜/ 오피스/ 창고/ 비즈니스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독점 LA HABRA – COMMERCIAL FOR LEASE

$1.30 PER SQ.FT.
SMALL RETAIL/ OFFICE SPACE
A. 912 SQ.FT.
[STREET FRONT OFFICE/RETAIL SPACE]
B. 400 SQ.FT.
[OFFICE SPACE]
*MODIFY GROSS LEASE [NO NNN]
*MOVE-IN READY
*ONSITE PARKING

독점 Cypress – For Sale

$615,000
CYPRESS – 최고 학군 LUXURY CONDO
2 BEDS + 2 BATHS
1,042 sq.ft.
*CUL-DE-SAC
*2 CAR Attached Garage
*Oxford/Cypress High/ Lexington Jr. High
Landell & Arnold Elementry

독점 Bellflower – Duplex

$850,000
A. 2 BED + 2 BATH (1655 sq.ft. Estimate)
Rent: $2695 per month
B. 1 BED + 1 BATH (400 sq.ft. Estimate)
Rent: $1200 per month
*2 CAR GARAGE + DRIVE WAY
*TENANT (MONTH TO MONTH LEASE)
*조용하고 안전한 동내입니다.

Cerritos –Single Family Home

$979,000
Detached Single Family Home
4 Beds + 3 Baths PLUS Bonus Room
2,486 sq.ft.
5,950 sq.ft.
*조용하고 안전한 동내입니

독점 FULLERTON – LEASE

$3,150 per month
AMERIGE HEIGHTS PLAZA WALK FOR LEASE
3 BEDS + 2.5 BATHS 1,524 SQ.FT.
*FISLER ELEMENTRY, SUNNY HILL HIGH
*JULY 이사 가능
*INTERIOR ACCESS SUBJECT TO APPROVED APPLICANTS ONLY!

LA MIRADA – 단층 싱글홈

$799,000
4 BED + 2.5 BATHS
1,681 sq.ft. 5,884 sq.ft. (LOT)
*FULLY REMODEL 한 집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
*한국타운, 마켓, 쇼핑몰 근방

Buena Park – 럭셔리 싱글홈

$999,000
4 BEDS + 2.5 BATHS
2,266 sq.ft. 8,400 sq.ft. (LOT)
*LOS COYOTE COUNTRY CLUB 골푸장 근방
*3 CAR Attached Garage *LONG DRIVE WAY
*FULLY REMODEL 한 집
*SUNNY HILL HIGH SCHOOL